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낙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연주(宋娟株)**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ADHD 성향 남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이들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 간 관계에서 낙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남학생 45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교사보고에 의해 ADHD 성향이 있다고 평가받은 남학생 17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와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돌봄과 통제 모두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적 양육행동과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 간 관계에서 낙인은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이는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돌봄이 중요한 요소로써, 이들이 경험하고 있을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에 중점을 둔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ADHD 성향, ADHD 성향 남아, 아버지 양육행동, 또래관계, 낙인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직과 조교수

I. 서론

최근 들어 ADHD 성향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DHD 성향 아동이란 전문가에 의해 ADHD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정도나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준 임상 진단군 아동을 일컫는 것으로(김재원, 박기홍, 최민정, 2004; Cho et al., 2009), 이들에게서도 ADHD 아동과 유사한 여러 가지 부적응들이 확인되고 있다(오선화, 하은혜, 2014; 이동훈, 송연주, 김홍석, 2012; Cho et al., 2009; Lewinsohn, Shankman, Gau, & Klein, 2004). 이들은 ADHD로 진단받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적절한 개입이나 치료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ADHD로 진단받게 되거나 또 다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Cho et al., 2009),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ADHD 성향 아동의 특성은 ADHD 아동의 특성을 통해 예측이 가능한데, ADHD 성향 아동 역시 ADHD 아동과 유사하게 또래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DHD 증상인 충동성이나 산만함은 놀이나 게임에서 규칙을 지키거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래의 놀이에 끼어들어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부주의함은 대화 중에 딴 생각을 하게 하거나 중요한 사회적 단서를 놓치게 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 ADHD 성향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충동성이나 산만함, 혹은 공격성을 자주 보여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으며(Diamantopoulou, Henricsson, & Rydell, 2005), 또래와의 관계에서 분노 조절이 힘들고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아 잦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동훈, 2011).

학령기 아동은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는 느낌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일상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을 아동 발달의 필수적 요소로 보긴 어렵지만,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학교부적응이나 학업 문제로부터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 어려움에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Murg, Hoza, & Gerdes, 2001). 그러나 ADHD 성향 아동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기회조차 갖기 매우 어려운데, 여기에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ADHD 성향과 학교폭력 혹은 사이버 폭력 간의 관련성이 더해지게 되면서(이희정, 황선영, 2013; 최진오, 2012; Molina, Smith, & Pelham, 1999; Turcotte, Vivier, & Gielsvik, 2014), 이들의 또래관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입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DHD 성향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 기술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게 되면서 또래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사회성이 점점 더 떨어져,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된다(이명자, 홍경자, 조성은, 2004;

Wiener & Mak, 2009). 사회적 기술을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으로 또래관계기술을 들 수 있다. 또래관계기술이란 또래수용이나 또래거부와 같은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행동으로(양운란, 오경자, 2005), 이를 통해 아동의 또래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기술을 통해 이들의 또래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80~90%가 남아에게서 발병한다는 점에서(Barkley, 2006; Hurt, Hoza, & Pelham., 2007), 연구대상을 ADHD 성향 남아로 선정하여 이들의 또래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ADHD 아동에게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함으로 또래수용과 사회적 유능감을 높여주는 반면,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ADHD 증상과 공격성을 더욱 높여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미아, 2008; Hurt et al., 2007; Kaiser, McBurnett, & Pfiffner, 2011). ADHD 아동의 부모는 일반 아동의 부모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신연희, 정현희, 최성열, 2010; Oh et al., 2012), 아동의 양육에 보다 많은 책임을 지닌 어머니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ADHD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적, 사회적, 학업적 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오원옥, 박은숙, 2007; 윤정연, 유미숙, 2015; 이미아, 2012), 이러한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다(Mikami, Jack, Emeh, & Stephens, 2010; Oh et al., 2012). 이로 인해 아동의 공격성을 높이고 사회적 유능감을 떨어뜨림으로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어머니가 ADHD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아버지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아동에게도 매우 필요한 존재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특히 ADHD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며, 아동의 행동적, 정서적 발달은 물론, 사회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아, 2012; Chang & Gau, 2010). 국외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ADHD 남아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방식과 또래수용은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어머니의 영향력은 또래수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inshaw & Melnick, 1995; Hurt et al., 2007; Russell, Hart, Robinson, & Olsen, 2003). 이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여아가 아닌 남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박미순, 김현숙, 2015)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ADHD 남아들이 대부분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아닌 동성의 아버지를 모델링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urt et al., 2007).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ADHD 아동은 물론,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과 상호작용 하는 시간이 적

고 ADHD 자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한 양육행동을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이성식, 2013), 주로 체벌과 같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아, 2012; Chang & Gau, 2010). 이는 자신들의 행동이 ADHD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ADHD 성향 아동은 ADHD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말 안 듣는 아이'나 '문제아' 혹은 '나쁜 아이' 등으로 낙인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나타내는 행동 특성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간주됨으로써 또래나 주위로부터 사회적 낙인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해 아동은 스스로를 문제아로 여기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문제아로 여긴다고 생각하는 자아 낙인을 형성하게 된다(김효수, 김성천, 유서구, 2010; 서미정, 김홍석, 2013). 일반적으로 낙인을 경험하여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면 그러한 자아대로 행동하게 되는 성향이 있다. 이는 소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주위의 부정적 인식이 ADHD 성향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 결국 아동은 그 인식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Heatherton, Kleck, Hebl, & Hull, 2003).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ADHD 성향 아동을 향한 주위의 부정적인 인식, 즉 낙인은 지속되게 된다.

한 아동이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얻게 되면, 또래들은 해당 아동에 대해 거리감을 두며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Wiener et al., 2012). 이러한 경향성은 천식이나 폭력, 비행에 비해 ADHD를 가진 또래를 향해 더욱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 또래들은 ADHD 아동과는 상대적으로 큰 사회적 거리감을 두려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Walker, Coleman, Lee, Squire, & Friesen, 2008). 이처럼 낙인은 또래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ADHD 증상으로 인해 또래들은 ADHD 성향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주위의 부정적인 인식이 ADHD 성향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을 더욱 지속시키게 됨으로써 이들의 또래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음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자율적으로 대해주며 애정적일 때 자녀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이 되어 사회적 적응이 향상되고(김소현, 2010; 이성식, 2007),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개선될수록 낙인이 감소하여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상은, 김춘경, 2013; 김효수 외, 2010). ADHD 아동의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로부터의 따뜻한 말과 격려가 ADHD 아동을 향한 또래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켰다(Mikami et al.,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본다면 ADHD 성향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낙인의 수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 평가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Hoelter, 1984),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봄으로써, 국외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가 경험하는 낙인을 매개로 하여 이들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낙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 시 이들의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ADHD 성향 아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ADHD 성향 아동이나 어머니 중심의 개입이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중심의 개입으로 확대된다면, 이들의 또래관계 증진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B시 및 Y시에 소재한 7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남학생 451명 중에서, 교사에 의해 ADHD 성향이 있다고 평가받은 남학생 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DHD 성향 남아는 담임교사가 ADHD 성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아동에 대해 ADHD 평가 척도(교사용)를 통해 판별점수 기준에 부합된다고 평가받은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을 의미한다. 학생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인 173명의 ADHD 성향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26.83점과 8.03이며, ADHD

성향 점수는 17점에서 52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학년별로는 5학년 76명(43.9%), 6학년 97명(56.1%)이었다.

연구자는 설문을 실시하기 전 교사에게 연구 목적, 설문 절차, 설문 중 유의사항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첨부하여 설문 실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이 때 ADHD 성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실시하거나 설명문을 첨부하여, 교사들이 ADHD 성향 이외에 학교부적응이나 정서적인 문제, 비행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담임교사가 아동의 ADHD 성향을 충분히 관찰한 뒤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월 개학 후 한 학기 동안을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기간으로 두고, 여름방학 실시 전인 7월 말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평소 ADHD 성향을 보이는 아동이 설문에 응답할 시 주의를 기울여줄 것과 필요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ADHD 성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사의 평정은 매우 중요하다. ADHD와 관련된 증상이나 문제점들은 구조화된 환경인 학교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는데, 이러한 교실 속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교사들이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교사들은 아동들과 교실 속에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동일한 발달 수준의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주의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대한 아동의 반응도 잘 관찰할 수 있다. 부모가 ADHD 성향을 판단할 경우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는 있지만, 학교생활에서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사와 달리 비교대상이 없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송수미, 김재환, 2002).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담임교사로 하여금 아동의 ADHD 성향을 평가하게 하였고, 학생들은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낙인, 또래관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응답하도록 한 이유는 부모가 보고한 자녀양육행동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Saavedra, 1980)에 근거해서이다. 이는 자녀에게 있어 실제 경험한 의사소통 내용보다는 의사소통 경험에 대한 자신의 지각 방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어떤 장애나 문제보다도 또래들은 ADHD 아동을 향해 더욱 더 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조사된 바 있어(Walker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비롯하여 낙인과 또래관계기술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 개념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적으로 발달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점(Harter, 2012)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자기행동과 정서에 대한 지각이 낮아 자기-보고 자료의 신뢰성이 높지 않을 것(Hoza, Waschbusch, Pelham, Molian, & Milich, 2000)으로 판단하였다.

2. 측정도구

1) ADHD 평정 척도

본 연구에서는 ADHD 성향 아동을 평가하기 위해 DuPaul(1991)의 교사용 ADHD 평가 척도를 소유경 등(2002)이 번안하고 김영신 등(2003)이 표준화한 한국판 교사용 ADHD 평가 척도(K-ARS)를 사용하였다. K-ARS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충동성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각각 9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아동의 문제행동의 빈도에 따라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2점 이상의 점수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총점이 17점 이상을 ADHD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김재원 외, 2004).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K-ARS의 점수가 17점 이상의 아동을 ADHD 성향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소유경 등(2002)의 연구에서 주의력결핍은 .77~.87, 과잉행동-충동은 .78~.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96, 과잉행동-충동 .96, 총합은 .97로 나타났다.

2) 부모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Parker와 Barrett 및 Hickie(1979)가 개발한 부모-자녀 유대 검사(Parent Bonding Instrument)를 송지영(1992)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형 부모-자녀 유대 검사 척도(Parent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기억을 토대로 부모의 태도나 행동을 기억하여 작성하게 하는 자기보고 형식으로,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각에 대해 돌봄(“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한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등의 12문항)과 통제(“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한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어린아이 취급한다.” 등의 13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검사별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신뢰도 측정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 부하량이 .40 이하로 나타나는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부모 양육행동 척도에서는 부돌봄의 경우 신뢰도가 낮은 4번 문항을 제외하였고, 부통제의 경우에는 요인부하량이 .40 이하로 나타난 8번과 20번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모통제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9번과 13번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송지영(1992)

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돌봄 .90, 부통제 .86, 모듈봄 .87, 모통제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부돌봄 .82, 부통제 .62, 모듈봄 .78, 모통제 .67로 나타났다.

3) 낙인

본 연구에서는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Kaidar와 Wiener 및 Tannock(2003)이 개발한 ADHD 귀인 척도(Attributions for ADHD questionnaire: AAQ)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AAQ 척도는 행동에 대한 통제성(controllability), 침투성(pervasiveness), 낙인(stigmatization)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낙인은 부모로부터의 낙인(3문항), 교사로부터의 낙인(2문항), 또래로부터의 낙인(3문항)와 아동 자신에 대한 낙인(2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로부터의 낙인("친구들이 내 행동으로 인해 방해받거나 힘들어 한다.", "어떤 친구들은 내 행동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들은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나를 다르게 취급한다.")과 아동 스스로에 대한 낙인("내가 생각해도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 "때때로 나도 내 행동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의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2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3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Kaidar 등(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76으로, 본 연구에서는 .83로 나타났다.

4) 또래관계

본 연구에서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개발한 또래관계기술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직접 평정하는 것으로, 주도성("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를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말한다." 등의 9문항)과 협동/공감("나는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내 순서를 기다린다.", "나는 나를 도와준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등의 10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없었다"에서 3점 "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양윤란과 오경자(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1로,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

술통계,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아버지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각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돌봄은 모듈봄과 또래관계기술과는 정적상관을, 부통제, 모통제, 낙인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부통제는 모듈봄, 또래관계기술과 부적상관을, 모통제와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모듈봄은 모통제 및 낙인과 부적상관을, 또래관계기술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낙인은 또래관계기술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모통제는 낙인 및 또래관계기술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 양육행동 간에는 다소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또래관계기술과도 다소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아버지 양육행동과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 간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아버지 양육행동						
1. 부돌봄	-	-.48***	.76***	-.63***	-.17*	.36***
2. 부통제		-	-.38***	.63***	-.00	-.28***
어머니 양육행동						
3. 모듈봄			-	-.69***	-.18*	.34***
4. 모통제				-	.09	-.26
5. 낙인					-	-.38***
6. 또래관계기술						-
평균	2.23	1.21	2.18	.93	.38	2.07
표준편차	.51	.39	.44	.43	.41	.45

*** $p < .001$, * $p < .05$

1) 아버지 돌봄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행동을 돌봄(부돌봄)과 통제(부통제)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각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함께 투입함으로써,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서 아버지 양육행동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설명력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또래관계기술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하고, ADHD 성향 남아가 지각하는 부·모 돌봄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 돌봄의 투입 순서는 ADHD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들(Hurt et al., 2007; Russel et al., 2003)에 근거하여, 1단계에서는 모듈봄을, 2단계에서는 모듈봄과 부돌봄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부돌봄이 투입되었을 때 모듈봄의 영향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모듈봄은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부돌봄이 추가되었을 때는 모듈봄이 또래관계기술을 설명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부돌봄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이 2% 증가되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모형의 F 값은 13.86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모듈봄은 ADHD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beta = .17, p > .05$)으로 나타났다.

<표 2>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부·모 돌봄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R	R^2	수정된 R^2	SE	통계량 변화				
					R^2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F변화량 유의확률
1	.34	.12	.12	.43	.12	22.92	1	171	.00
2	.37	.14	.13	.42	.02	4.34	1	170	.04

주. 모형 1. 예언변인: 모듈봄, 모형 2. 예언변인: 모듈봄, 부돌봄

<표 3>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부·모 돌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	B	SE	β	t	F
1	모듈봄	.36	.07	.34	4.79***	22.92***
2	모듈봄	.18	.11	.17	1.54	13.86***
	부돌봄	.20	.10	.23	2.08*	

*** $p < .001$, * $p < .05$

2) 아버지 통제가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또래관계기술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하고, ADHD 성향 남아가 지각하는 부·모통제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모통제를, 2단계에서는 모통제와 부통제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모통제는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부통제가 추가되었을 때, 모통제가 또래관계기술을 설명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부통제가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이 2% 증가되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모형의 F 값은 8.50이며, 유의수준 .05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통제가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4, p > .05$).

<표 4>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부·모 통제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R	R ²	수정된 R ²	SE	통계량 변화				
					R ²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F 변화량 유의확률
1	.26	.07	.07	.44	.07	12.55	1	169	.00
2	.30	.09	.08	.44	.02	4.22	1	168	.04

주. 모형 1. 예언변인: 모통제, 모형 2. 예언변인: 모통제, 부통제

<표 5>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부·모 통제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수	B	SE	β	t	F
1	모통제	-.28	.08	-.26	-3.54**	12.55**
	부통제	-.15	.10	-.14	-1.47	
2	부통제	-.23	.11	-.20	-2.05*	8.50***

*** $p < .001$, ** $p < .01$, * $p < .05$

2. 아버지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과

1) 아버지 돌봄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4단계 매개효과 분석절차를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한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가정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는지 검증하게 된다. 또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검증한다. 4단계에서 가정된 매개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인 효과의 유의미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완전매개효과를 가진 것이며,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실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부돌봄이 종속변인인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6, p<.001$), 부돌봄이 매개변인인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7, p<.05$). 그리고 매개변인인 낙인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32, p<.001$), 부돌봄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beta=.36$)에서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었다($\beta=.30$). 따라서 낙인은 부돌봄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돌봄은 단독으로 또래관계기술에 대해 13%의 설명변량을 가졌으나, 낙인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23%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6> 부돌봄과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낙인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i>B</i>	<i>SE</i>	β	<i>t</i>	<i>R</i> ²	<i>F</i>
1단계 부돌봄	또래관계기술	.32	.06	.36	5.02***	.13	25.16***
2단계 부돌봄	낙인	-.14	.06	-.17	-2.30*	.03	5.29*
3단계 부돌봄	또래관계기술	.27	.06	.30	4.42***	.23	25.35***
낙인		-.36	.08	-.32	-4.73***		

*** $p<.001$, * $p<.05$

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낙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2.07, p<.05$). 따라서 부돌봄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버지 통제가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부통제가 종속변인인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beta=-.28, p<.001$), 부통제가 매개변인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0, p>.05$). 또한 부통제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beta=-.28$)에서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지 않았다($\beta=-.28$). 따라서 낙인은 부통제가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부통제가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낙인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1단계 부통제	또래관계기술	-.33	.09	-.28	-3.84***	.08	14.73***
2단계 부통제	낙인	-.00	.08	-.00	-.03	.00	.00
3단계 부통제	또래관계기술	-.33	.08	-.28	-4.18***	.22	24.23***
낙인		-.42	.08	-.38	-5.58***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돌봄과 통제로 나누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영향력을 비교해보았다.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행동의 경우, 1단계에서 모듈봄만 투입하였을 때, 모듈봄은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단계에서 부돌봄과 함께 투입하였을 때는 모듈봄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부돌봄만이 이들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모듈봄만 투입하였을

때는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단계에서 부통제와 함께 투입하였을 때는 모통제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부통제만 이들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ADHD 성향을 보이는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모두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ADHD 성향 남아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중요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남아의 또래수용과 매우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Hinshaw & Melnick, 1995; Hurt et al., 2007; Russell et al., 2003)를 지지하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남아의 문제 행동 감소와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결과(Chang & Gau, 2010)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미아, 2008; Hurt et al., 2007; Kaiser et al., 2011; Mikami et al., 2010)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는 모성 강점 가설(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김홍석, 노영천, 2012 재인용)과는 다르게, 남아들이 또래와 상호 관계를 맺을 시에는 어머니가 아닌 동성의 아버지를 모델링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Hurt et al., 2007)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아버지들은 자녀와 놀아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남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차례를 기다리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와 반대로 아버지의 강압적이거나 지배적인 양육방식으로 자녀가 갈등이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를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풀 수 있다(Hurt et al., 2007; Mikami et al., 2010).

ADHD 아동의 양육과 훈육의 책임은 대부분 어머니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ADHD 아동의 아버지들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동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거나, ADHD 성향 자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이미아, 2012; 이성직, 2013). 또한 ADHD 아동을 자녀 둔 아버지들은 이들의 행동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부분 따뜻하고 수용적인 방식보다는 처벌과 같은 통제적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도 보고된 바 있다(이미아, 2012; Chang & Gau, 2010; Oh et al., 2012). 따라서 ADHD 성향 남아들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함을 인식하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들이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 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행동은 낙인을 매개로 하여 ADHD 성향 남아

의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적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낙인이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공감적인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낙인을 감소시켜 이들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애정적인 돌봄이나 애착이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 연구결과들(곽상은, 김춘경, 2013; 김소현, 2010; 김효수 외, 2010; 이성식, 2007; Mikami et al., 2010)과 또래로부터의 부정적인 시각이 이들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 연구결과(Hoza et al., 2005)를 지지한다. 부모의 따뜻한 말과 격려가 ADHD 아동의 또래수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Mikami et al., 2010)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ADHD 성향 아동들 역시 낙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낙인이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낙인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더 큰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래관계기술에 대해 13%의 설명량을 가진 부돌봄이 낙인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2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8%의 설명량을 보인 부통제가 낙인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는 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 이들이 경험하는 낙인이 아버지의 양육행동보다 더 크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을 낙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돌봄은 ADHD 성향 남아의 낙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들의 또래관계기술을 증가시켰다. 이는 ADHD 성향 아동이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돌봄을 통해 자신들이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경험하는 낙인을 감소시켜 또래관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아버지와 아동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ADHD 성향 남아들의 주관적 자기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변화된 아동의 행동은 주위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인식의 감소로도 이어져, 이후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평소에도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 주며, 자녀를 격려해주는 등의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실 ADHD 성향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가 이들에게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의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ADHD 성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문제아라고 생각하고 다루는 경우에 자녀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다시 말해, 단순한 통제나 처벌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에 따른 적절한 양육 방법이나 대처 방식 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ADHD 성향 남아들의 문제 행동이 줄고, 아버지로부터 사회적 기술을 배우면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낙인에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같은 주관적인 인식과 생각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 아동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더욱더 주위의 부정적인 인식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Heatherton et al., 2003), ADHD 성향 아동의 경우에도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낙인이 형성 및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은 한 번 형성되고 나면 쉽게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해당 아동이 기존에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나 이후 생겨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으로의 변화마저도 인지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 이들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Hoza et al., 2005). ADHD라는 진단명으로 인해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도 사회에서 낙인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DHD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은 ‘ADHD 아동 어머니’라는 이름표 밑에서 함께 고통 받으며, 자녀의 ADHD라는 진단명을 가까운 사람들이나 친척들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은 채 자신들을 보호하며 자녀들에게 울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오원옥, 박은숙, 2007; 윤정연, 유미숙, 2015). 그 어떤 다른 장애나 문제보다도 ADHD 아동을 향해 부정적 시각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Walker et al., 2008)에서도 보듯이, 사회적으로 이미 ADHD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따뜻한 양육행동으로 인해 ADHD 성향 남아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거나 이들의 문제 행동이 감소된다 할지라도, 이들을 향한 사회적인 시선이 함께 바뀌어주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으로 ADHD 성향 아동의 낙인을 감소시켜주는 노력과 동시에 이들을 둘러싼 주위의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는 학령기 ADHD 성향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가 ADHD 증상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다소 특이한 행동을 하는 친구에 대한 또래집단 자체의 수용도를 높여 주거나, 또래 간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또래로부터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의 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Mikami, 2010). 지금까지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부분 ADHD 성향 아동이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이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포함하는 가족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ADHD 성향 아동을 향한 주위의 시선을 변화시켜주기 위한 학교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다방면에서의 협력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 본다면 ADHD 성향 남아들은 이미 관계에서 주위로부터

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는데다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이들의 낙인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이들의 또래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낙인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ADHD 성향 남아가 겪고 있을 낙인의 영향력이 크지만,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을 ADHD 성향 남아들에게 완충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Hurt et al., 2007). 아버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힘들지만 이를 또래들 사이에서 계속 연습해보고, 아버지는 이를 지지하며 갈등과 긴장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들이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ADHD 성향 아동의 행동은 무조건 통제한다고 해서 고치거나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주위의 정확한 이해와 도움이 없어 그저 문제아로 낙인 되어 버림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돕는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봤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보고에 의해 ADHD 성향 아동을 분류하였으나, 평정자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교사 평가뿐만 아니라 부모나 전문가의 평가와 관찰 등의 여러 절차를 걸쳐 종합적인 진단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5, 6학년 아동으로 대상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ADHD 성향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ADHD 성향 아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인식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나 낙인을 살펴봄에 있어서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ADHD 아동의 경우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실제 자신의 수행과 모순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성향도 보이고 있어(Hoza et al., 2010), 향후 또래측정이나 또래지명, 관찰법 등을 통해 여러 조사자로부터 측정된 자료를 활용한다면 ADHD 성향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 보다 풍성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남아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여아들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낙인은 관계에 있어서 여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Mikami & Lorenzi, 2011), ADHD 성향 여아들을 대상으로 낙인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상은, 김춘경(2013). 애착, 비공식낙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77-95.
- 김소현(2010). 다층성장모형(HLM)을 통한 청소년의 비공식적 낙인 변화 추정.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7(0), 7-31.
- 김영신, 소유경, 노주선, 최낙경, 김세주, 고윤주(2003). 한국어판 부모 및 교사용 ADHD 평가 척도(K-ARS)의 기준 연구. **신경정신의학**, 42(3), 352-359.
- 김재원, 박기홍, 최민정(2004). 지역사회에서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선별기준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3(2), 200-208.
- 김홍석, 노영천(201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4), 1751-1765.
- 김홍석, 송연주, 이동훈(2013).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보고된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331-350.
- 김효수, 김성천, 유서구(2010). 비공식낙인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인과모형- 매개효과와의 검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185-206.
- 박미순, 김현숙(2015).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특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7(2), 353-362.
- 서미정, 김홍석(2013).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과 일탈적 자아낙인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41(0), 161-183.
- 서석원, 이대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 19(2), 157-178.
- 소유경, 노주선, 김영선, 고선규, 고윤주(2002). 한국어판 부모, 교사 ADHD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1(2), 283-289.
- 송수미, 김재환(2002). ADHD 및 우울/불안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교사 간 평정 일치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4), 859-869.
-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2.
- 신연희, 정현희, 최성열(2010).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기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아동교육**, 19(3), 143-158.

- 양윤란, 오경자(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초등학교 4학년-중학년 3학년 학생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961-971.
- 오원옥, 박은숙(200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 부모의 양육경험: 정상에 다가가기. **대한간호학회지**, 37(1), 91-104.
- 오선화, 하은혜(2014). 아동의 실행기능 및 ADHD 증상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7(1), 17-35.
- 윤정연, 유미숙(2015). 초등학생 ADHD 자녀 양육에 관한 어머니 경험 연구. **놀이치료연구**, 19(3), 19-36.
- 이동훈(2011). 교사가 지각한 ADHD 아동의 또래, 교사, 부모 관계 특성. **재활심리연구**, 18(3), 341-360.
- 이동훈, 송연주, 김홍석(2012). 초등학생의 ADHD 증상과 인터넷 중독 성향과의 관계: 불안과 사회기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421-440.
- 이명자, 홍경자, 조성은(2004).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과 정상아동간의 귀인성향과 사회적 기술의 차이. **상담학연구**, 5(3), 681-692.
- 이미아(2008). ADHD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영향요인간의 관계. **특수교육학연구**, 43(1), 17-35.
- 이미아(2012). 효과적인 ADHD 아동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개발.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281-310.
- 이성식(2007). 청소년비행과 비공식낙인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71(3), 1105-1127.
- 이성직(201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가족상담 접근에 대한 고찰 및 제안. **가족과 상담**, 3(1), 1-14.
- 이희정, 황선영(2013). 청소년의 ADHD 성향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2(0), 83-108.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최진오(2012). 초등학생의 ADHD 증상에 따른 오프라인,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수준.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191-210.
- Barkley, R. A. (2006).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handbook for diagnosis and treatment* (3rd ed.). New York: Guilford.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hang, L. R., & Gau, S. S. F. (2010). Fathering and father-child interaction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Taiwanese Journal of Psychiatry, 24*(1), 14-29.
- Cho, S. C., Kim, B. N., Kim, J. W., Rohde, L. A., Hwang, J. W., Chung, D. S., Shin, M. S., Lyoo, I. K., Go, B. J., Lee, S. E., & Kim, H. W. (2009). Full syndrome and subthreshol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a Korean community sample: comorbidity and temperament findings.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8*(7), 447-457.
- Diamantopoulou, S., Henricsson, L., & Rydell, A. M. (2005). ADHD symptoms and peer relations of children in a community sample: Examining associated problems, self-perceptions, and gender differ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5), 388-398.
- DuPaul, G. J. (1991). Parent and Teacher Rating of ADHD symptoms: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community-based sampl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3), 245-253.
- Harter, S. (2012). Emerging self-processe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680-715).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atherton, T. F., Kleck, R. E., Hebl, M. R., & Hull, J. G. (2003).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inshaw, S. P., & Melnick, S. M. (1995). Peer relationships in boys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with and without comorbid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627-647.
- Hoelter, J. W. (1984). Relative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on self-evalu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255-262.
- Hoza, B., Murray-Close, D., Arnold, L. E., Hinshaw, S. P., & MTA Cooperative Group. (2010). Time-dependent changes in positive illusory self-perceptions of children with ADHD: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2), 375-390.
- Hoza, B., Waschbusch, D. A., Pelham, W. E., Molina, B. G., & Milich, R. (2000).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nd control boys' response to social success and failure. *Child Development, 71*(2), 432-446.
- Hoza, B., Gerdes, A. C., Mrug, S., Hinshaw, S. P., Bukowski, W. M., Gold, J., Arnold, E., Abikoff, H., Conners, K., Elliott, G., Greenhill, L., Hechtman, L., Jensen, P., Kraemer,

- H., March, J., Newcorn, J., Severe, J., Swanson, J., Vitiello, B., Wells, K., & Wigal, T. (2005). Peer-assessed outcomes in the multimodal treatment study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4*(1), 74-86.
- Hurt, E. A., Hoza, B., & Pelham, W. E. (2007). Parent-child relationships, peer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of boy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3), 195-216.
- Kaidar, I., Wiener, J., & Tannock, R. (2003). The attributions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for their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6*(3), 99-109.
- Kaiser, N. M., McBurnett, K., & Pfiffner, L. J. (2011). Child ADHD severity and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s predictors of child social functioning: evaluation of three theoretical models.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5*(3), 193-203.
- Lewinsohn, P. M., Shankman, S. A., Gau, M., & Klein, D. N. (2004). The prevalence and co-morbidity of subthreshold psychiatric conditions. *Psychological Medicine, 34*(4), 613-622.
- Mick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092-1106.
- Mikami, A. Y. (2010).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for youth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3*(2), 181-198.
- Mikami, A. Y., & Lorenzi, J. (2011). Gender and conduct problems predict peer functioning among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0*(5), 777-786.
- Mikami, A. Y., Jack, A., Emeh, C. C., & Stephens, H. F. (2010). Parental influences on children with ADHD: I. Parental behavi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6), 721-736.
- Molina, B. S., Smith, B. H., & Pelham, W. E. (1999). Interactive effect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conduct disorder on early adolescent substance us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3*(4), 348-358
- Mrug, S., Hoza, B., & Gerdes, A. C. (2001).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 peer relationships and peer-oriented interventions. In D. Nangle & C. Erdley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Friendship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pp. 51-77).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Oh, W. O., Park, E. S., Suk, M. H., Song, D. H., & Im, Y. (2012). Parenting of children with ADHD in South Korea: the role of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13-14), 1932-1942.
- Parker, G., Barrett, B., & Hickie, I. (1992). From nature to network: examining links between perception of parenting received in childhood and social bond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7), 877-880.
- Russell, A., Hart, C. H., Robinson, C. C., & Olsen, S. F. (2003). Children's sociable and aggressive behaviour with peers: A comparison of the U.S. and Australia, and contribution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1), 74-86.
- Saavedra, J. M. (1980).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on the self-evaluation of Puerto Rican adolescent males.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41-54.
- Turcotte, B. F., Vivier, P. M., & Gielsvik, A. (2014). Mental health and bullying in the United States among children aged 6 to 17 yea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3), 120-130.
- Walker, J. S., Coleman, D., Lee, J., Squire, P. N., & Friesen, B. J. (2008). Children's stigmatization of childhood depression and ADHD: Magnitude and demographic variation in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7(8), 912-920.
- Wiener, J., & Mak, M. (2009). Peer victimization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sychology in the Schools*, 46(2), 116-131.
- Wiener, J., Malone, M., Varma, A., Markel, C., Biondic, D., Tannock, R., & Humphries, T. (2012).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ADHD symptoms: Positive illusions, attributions, and stigma. *Canad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3), 217-242.

* 논문접수 2016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9월 9일 / 게재승인 2016년 9월 21일

* 송연주: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부산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직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관심사는 또래관계, 스마트 폰 중독, 애착, ADHD 등이 있다.

* E-mail: songyj@bufs.ac.kr

Abstract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on Peer Relations of Boys with ADHD Symptoms: Mediating Role of Stigmatization*

Song, Yeon Jo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on peer relations of boys with ADHD symptom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tigmatization on the effect. A total of 173 subjects was selected from teacher-reports(K-ARS) in a sample of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boy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hypothe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ather's parenting showed the effect on their peer relations. Although both mother's parenting and father's parenting were important to their peer relations, father's parenting affected their relations more than mother's parenting. Second, association between father's warm parenting and peer relations of the boys was mediated by stigmatization. However, association between father's control parenting and their peer relations was not mediated by stigmatization. Through the study, it was revealed that father's warm parenting has a major impact on peer relations of boys with ADHD symptoms, and stigmatization which the boys could experience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their peer relations. According to these results,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ADHD symptoms, boys with ADHD symptoms, father's parenting, peer relations, stigmatiza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2016

** Assistant Professo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